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기프트콘도 선물하세요.  
꼭 만나야만  
마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니까!

SBI저축은행 X 최대호\_임어보시집



# 희망저축

SBI저축은행 매거진  
Winter 2021 Vol.28



얼음 결정의 생명,  
눈 송이의 건축가, 서리의 불꽃,  
상쾌한 겨울 공기는  
이 모든 것으로 가득차 있다.

존 버로스

Winter 2021 Vol.28

# CONTENTS

Life<sup>+</sup>

- 04 **SBI 체험현장**  
낚시와 글램핑을 한 번에 '이색낚시터' 체험, 도심어부
- 10 **SBI 금융상품**  
〈사이다뱅크 2.0〉 출시!
- 12 **SBI pick's**  
SBI 인기 배달음식
- 14 **유튜브 중계**  
유튜브 스테디셀러, '펫튜브'가 뜬다

News<sup>+</sup>

- 20 **세상읽기**  
실천력 강한 새해 계획 세우기
- 24 **SBI 포커스 ①**  
기업PR 캠페인\_ SBI가 SBI를 찾습니다
- 26 **SBI 포커스 ②**  
은행이 은행을 구하다\_ 은행저축프로젝트 시즌3
- 30 **New Face**  
채널2부 유영근 대리 외 1명
- 32 **SBI 희망뉴스**  
2020년 4분기 주요소식
- 38 **열린 편집실**  
편집후기 / 다른그림 찾기



## 희망저축

SBI저축은행 매거진  
Winter 2021 Vol.28

발행일\_ 2021년 1월 7일

발행인\_ 정진문, 임진구

발행처\_ SBI저축은행 홍보부

담당\_ 유형근 주임(02-3416-4210)

주소\_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센터원빌딩 동관 9층

기획·디자인\_ 디스토리

웹진\_ sbiwebzine.co.kr

SBI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1476(2020.12.31)

도심 일대에서 멀리 벗어나, 낚시도 하고 물 위에서 캠핑까지... 절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지만 막상 해보면 환상의 맛과 맛을 즐길 수 있다. 한적한 호수에서 고즈넉이 낚시대를 드리우면 삶의 여유가 넘쳐나지만, 월척이 없다면 대략 난감. 그러나 비장의 카드 '바비큐'가 있으니, 함께 간 이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수 있다.

참여 : 여신지원부 이훈 대리, 부인 표선아, 딸 이도경  
※ 코로나19 '방역 가이드'를 준수하며, 참가자 외 접촉을 최소화 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낚시와 글램핑을 한 번에  
'이색낚시터' 체험



# 도심어부

글. 여신지원부 이훈 대리



근데 막상 낚시 체험을 시작했을 때는 지렁이나 떡밥을 낚시바늘에 꼽는 것도 어렵고, 이게 딸 앞에서 체면이나 차릴 수 있을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씨름한 후에 속으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심어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제대로 된 물고기를 낚지 못했지만 딸 도경이는 좋아했습니다. 아빠가 멋쩍어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쾌활한 웃음꽃이 내내 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여행은 좋은 것입니다. 공기 좋고 경치 좋으니 아이도 너무 즐거워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하는 아이가 탁 트인 곳에 오니 물 만난 고기 같습니다.



처음 사내 게시판에 ‘도시어부 체험’ 글이 올라왔을 때는 ‘우리 가족이 낚시를 좋아하나?’, ‘안 돼도 그만이지...’ 하는 큰 기대 없이 신청했습니다. 가족들이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가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 아내와 딸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당첨! 그 소식이 로또 맞은 것처럼 2배, 3배로 펴 듯이 기뻐했습니다. 가족에게도 모르게 신청했던 터라 “여보, 우리 그냥 여행 가자”는 말을 꺼낼 때 제가 오히려 더 신났습니다. 게다가 낚시는 태어나서 손에 꼽을 정도로 경험이 없지만 왠지 “도심어부? 나 야냐?” 너무 재미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외곽의 굽이굽이 길을 따라가니 목적지인 냉정저수지가 등장합니다. 설명 들던 테로 물 위에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느지막이 도착하다 보니, 낚시터 사장님이 낚시부터 가르쳐 줍니다.





이제 또 다른 실력 발휘를 해볼까 합니다. 물고기는 실패했지만 육고기는 '짜악~' 불부터 피웁니다. 아내가 바리바리 싸온 정성이 노릇노릇 맛난 바비큐로 변신할 시간입니다. 야외에서 물가에서 차려진 바비큐는 정말 색다른 맛입니다. 더욱이 가족과 오붓하게 즐기니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입니다.

딸(도경이) “아빠 회사 사보 촬영 덕분에 난생처음 낚시를 해볼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사진 찍어 주시는 아저씨들이 너무 친절하였고, 낚시는 추웠지만 재미있었어요. 특히 저수지에서 잘 잡힌다는 메기를 직접 만져 볼 수 있어서 신기했어요. 저녁에는 아빠가 고기를 맛있게 구워 주어서, 밖에서 먹는데도 추운 줄도 몰랐어요. 그냥 따뜻하고 마냥 즐거웠던 거 같아요.”

아내(표선아 님) “코로나로 주로 집에서만 지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당첨이라는 핑계로 바깥 공기도 쐬고 어렸을 때 아버지랑 해보고 그동안 못했던 낚시를 다 해보네요. 새록새록 어릴 적 생각이 나서 즐거웠습니다. 물론 우리 남편이 잘 잡았으면 더 좋았을까요?(웃음) 무엇보다 코로나가 많아져 여행이 무서웠는데 이렇게 가족만의 공간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글램핑 안에는 온수매트랑 난로 등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폭 자고 나니, 온 세상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사실 물가고 초겨울이 다 되어서 둘째 날은 뭐하나 싶었는데...

운 좋게(?) 폭설이 우리 가족을 반겨줘서 영화의 한장면처럼 멋진 풍경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해 주신 SBI 우리 회사와 관계자분들 모두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른 분 오신다면 이곳에서 좋았던 점을 몇 가지 알려 드릴게요.

- 하나, 물 위에 떠 있는 수상 글램핑장이라서 잠자리가 색다르다.
- 둘, 낚시와 바비큐를 동시에 또는 함께 할 수 있다.
- 셋, 낚시 초보자도 장비대여까지 해주니 누구나 낚시체험이 가능하다.
- 넷, 물 위에서 먹는 바비큐는 정말 맛있다(고기 꼭 준비해 가시라)
- 다섯, 글램핑 안에 개별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다.



물위에 떠 있는 15동의 수상 카바나입니다. 모든 객실에서 낚시와 바비큐를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객실에는 에어컨, 난방시설, 냉온수 샤워부스, 수세식 화장실, 더블베드 2개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232-16 (지명: 냉정저수지)

예약전화 : 031-533-1649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한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 2.0). 함께 보고, 같이 쓸 수 있는 커플통장, 하나의 계좌를 분리해 효율적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통장쪼개기 서비스를 디지털 IT기술로 구현해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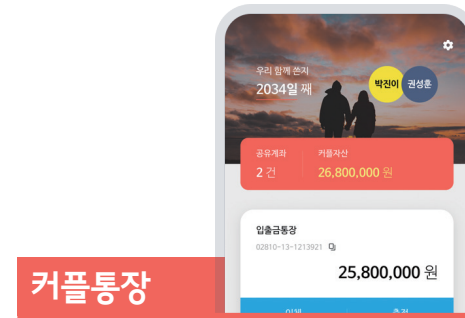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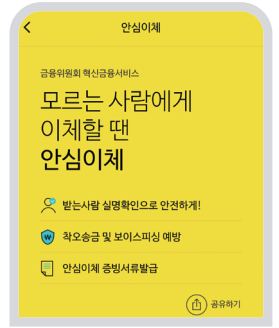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서비스 차별화

# 사이다뱅크 UPGRADE

SBI저축은행은 생활비나 데이트비용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부부, 커플 등을 위한 공유형 자산관리 서비스 <커플통장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시도한다. 커플이 각자의 모바일앱으로 함께 बैं킹을 이용할 수 있으며, 커플 상대방이 요청하고, 계좌 명의자가 간편인증 승인하면 이체가 가능한 '커플이체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통장쪼개기'는 이미 잘 알려진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는 여러 개의 계좌를 일일이 개설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SBI 사이다뱅크 2.0의 <통장쪼개기서비스>는 하나의 입출금 통장으로 생활비, 예비비, 여행비 등 목적에 맞춰 잔액을 '쪼개어'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각 통장별로 거래내역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의 생활주기에 맞춰 각 통장 간에 잔액을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사이다뱅크 2.0>은 파격적인 서비스와 함께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안심이체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제공한다.

금융권 최초로 착오송금, 보이스피싱사고 예방 '혁신금융서비스' 탑재. 송금 받는 계좌 명의자와 휴대전화번호 명의자가 동일인인지 검증해 금융사고로부터 고객을 보호한다. 앞으로도 SBI저축은행은 '고객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서비스로, 사이다뱅크를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완성할 것이다.



## 커플통장

커플통장, 어떤 상품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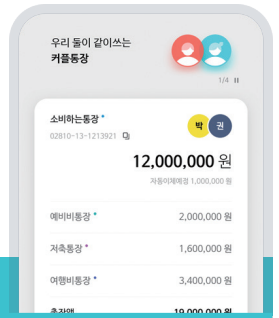
두 사람이 하나의 통장을 함께 공유하며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입출금통장은 물론 예/적금 상품도 함께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점이 편리한가요?

커플통장의 거래내역 조회는 물론 이체 및 예적금 납입도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이용할 경우에는 커플 통장에 연결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함께 결제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은 어떻게 하나요?

사이다뱅크 입출금통장을 커플통장으로 전환한 뒤, 통장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상대방에게 SMS나 카카오톡으로 커플통장에 초대합니다. 상대방이 초대를 수락하면 커플통장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통장쪼개기

'통장 쪼개기'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하나의 입출금계좌를 최대 4개의 '목적별 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는 신개념 재테크 기능입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한가요?

사이다뱅크 입출금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별'이라면 어떤 항목들로 분리가 되나요?

소비통장은 생활비 목적의 각종 지출거래를 담당하는 계좌입니다. 카드대금이나 공과금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바로 이 통장에서 출금됩니다. 예비통장은 비상자금 목적의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축통장은 목적자금 마련을 위해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계좌로 최대 2개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 오늘은 뭐 시켜먹을까? SBI 인기 배달음식

요즘엔 집에서 스마트폰 앱이나, 전화 한 통이면 어느 음식이든 바로 배달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인기 있는 맛집은 배달도 마냥 '대기'해야 한다. 가장 빨리 배달된다는 점이 인기투표에 영향일 미쳤을까요? SBI인이 좋아하는 배달음식은 여지 없이 야식의 왕자 '치킨'이 선정되었다.

전 세계 닭고기 요리가 없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돼지나 소보다 더 보편적인 먹거리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도축되는 동물 1위이기도 하다. 많이 사육하고, 저렴한 가격도 이유다.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9억 3,600만 마리의 닭이 도축되었다고 한다. 최근 통계로 1인당 닭고기 소비가 16킬로 정도라고 하니 1년에 20마리를 평균적으로 먹는 셈이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닭요리에는 닭볶음탕, 간풍기, 닭갈비, 짬닭, 삼계탕 등이 있지만 역시 42%로 치킨이 압도적으로 손꼽힌다. 옛말에 구두를 튀겨도 맛있다고 했는데 원래도 맛난 '닭'을 바삭바삭한 튀김옷을 입혔으니 오죽하랴. 치킨은 Chicken의 영어발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의미다. 프라이드(후라이드) 치킨의 줄임말로 '기름에 튀긴 닭'을 칭한다. 원래 튀긴 닭은 '통닭'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통닭과 치킨의 구분은 고기를 조각내는가와 그냥 한 마리 다 통째로 튀기는 차이다. 하지만 지금은 별반 구별을 짓지 않는다. 치킨이 한국에서 자리 잡게 된 이유로 1980년대 KFC가 한국에 진출하면서라는 설이

있다. 그보다는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미국 남부 지역의 튀긴 닭 요리가 전파되었다'라는 기록이 더 신빙성이 높다. 실제로 통닭은 이미 60년대부터 우리 시장에서 팔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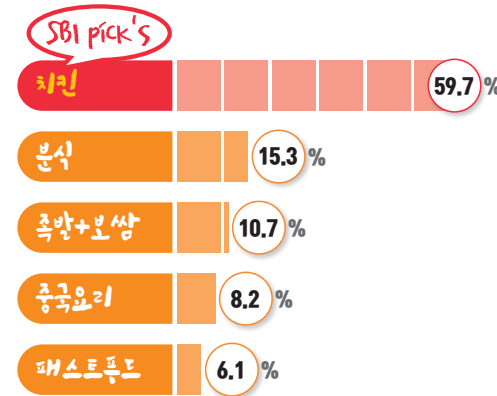
치킨을 더욱 치킨스럽게 만든 건 '맥주와 함께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이다. 더 많이 대중적으로 치맥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은 2002년 월드컵이다. 통닭집마다 길거리에 테이블을 놓고 여름밤을 거리공원으로 밝히기 시작했다. 이후 자연스럽게 치킨과 맥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생맥주와 치킨은 '치맥'을 낳았고, 치맥은 한국 드라마 속 장면을 타고 전 세계에 그 존재를 알렸다. 페리카나, 맥시카나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생겨났고, 오죽하면 퇴직하면 누구나 치킨집을 차리는 걸로 인식될 정도였다. 그만큼 치킨은 남녀노소 누구나 먹는 먹거리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치킨집 수가 총 3만 6천 개에 달한다고 한다. 어느 집이 맛난지, 어디다 배달해서 먹어야 할지 집집마다 기준은 엄격하다. 그러나 누가 와도,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사랑스러운 메뉴임에는 틀림없다.

### 치킨

치킨과 맥주. 퇴근시 최애템. 대표적인 공합 메뉴, 삼겹살엔 소주라면 치킨엔 500ml 생맥주! 지방이 많은 순살고기와 알코올의 조합으로 배달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오늘 치맥 어때?"

#### SBI 한줄평

- 닭은 튀기면서 비로소 완벽해졌다  
유영수 사원 | IB2부
  - 나중에 제가 하늘의 별이 된다면, 치킨을 제사상에 올려주세요  
안다솔 주임 | 삼성지점
  - '아빠왔다'라는 말보다 '치킨왔다'를 더 반가워하는 우리 아이들  
신동주 지점장 | 전주지점
  - 치킨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혁명이다. - 치계바라  
정재민 사원 | 재무경리부
  - 와이프는 닭다리를 양보하는 저의 자상함에 반했대요. 양보하지말걸.  
이규영 과장 | 소호영업3부
- ※ 베스트 한 줄 평에 선정되신 분들께 '배달음식상품권'을 드립니다.





유튜브 스테디셀러



# '펫튜브'가 뜬다

반려인 1500만 명 시대, 반려동물의 일상을 담은 '펫튜브'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2020년 기준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는 펫튜브 채널만 해도 대략 45개.  
꾸준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펫튜브의 흥런 비결을 알아보자.



## 펫튜브 전성시대의 시작

반려동물이 주인공인 콘텐츠는 사실 우리에게 꽤 친숙하다. 대표적으로 'TV 동물농장'은 20년 가까이 방영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으로, 공식 유튜브 계정으로 '애니멀봐'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애니멀봐는 구독자수 360만명, 최근 동영상의 하루 평균 조회수가 무려 21만 뷰에 이를 만큼 식지 않은 인기를 자랑한다.

펫튜브의 원조 격인 '수리노을'도 2012년 첫 영상을 업로드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채널이다. 유튜브가 급격하게 성장한 해가 2011년 이후인 것을 감안하면 '펫튜브'가 유튜브 초창기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 현재 펫튜브는 유튜브 동물 카테고리 따로 구분할 만큼, 콘텐츠로서 위상도 높아졌다.







이미지 : ©YouTube 골든단비, 해피퍼니



일반적으로 펫튜브는 반려동물을 관찰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지만, 펫튜브 형식에 대한 새로운 시도도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다. 문제 행동이 있는 반려동물을 등장시켜 솔루션을 제공하는 훈련 중심의 콘텐츠, 캐릭터를 중심으로 특정 상황을 연출하며 아예 예능형 펫튜브를 표방하는 채널도 눈에 띈다. TV와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강형욱 훈련사의 '보듬TV'가 전자라면, 펫튜브 카테고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크림히어로즈'는 후자에 가깝다.

펫튜브가 인기를 얻는 가장 큰 요인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반려동물의 양증맞은 외모다. 특히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남녀노소 공통적으로 호감을 갖기 쉽다. 푸른 들판에 강아지 몇 마리가 뛰노는 것만 봐도 힐링을 얻는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 광고 업계에서는 '3B가 나오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3B는 아기(Baby) 미인(Beauty) 동물(Beast)을 의미한다. 동물에 해당하는 펫튜브가 인기를 얻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경우, 펫튜브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훈련 노하우를 얻기도 한다. 반면 비(非)반려인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는 데

대한 대리 만족을 펫튜브를 통해 얻는다. 반려동물이 커가는 과정을 보며 즐거워하고, 나아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것. 인터넷을 통해 동물을 키운다는 '랜선 집사'란 신조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 자극적이지 않은 펫튜브가 반가운 이유

펫튜브가 인기를 끌수록, 콘텐츠에 대한 고민은 펫튜버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숙제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재미를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심심치 않게 '동물 학대' 이슈가 발생하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 인위적인 설정으로 동물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게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단체 '카라'는 국내 최초로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펫튜버로서 동물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태도다. 자극적인 영상을 위해 동물의 습성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동물에게 불가능한 챌린지를 강요하지 않는 등 반려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꾸미지 않은 담백한 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해피 퍼니'와 '골든 단비' 채널은 좋은 사례다.



## 해피퍼니 Happy Funny



골든 리트리버 '해피'와 시베리안 허스키 '퍼니'의 소소한 일상을 보여주는 채널. '해피 퍼니'의 주요 무대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다. 두 강아지는 시골개답게 채소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 중 일등은 바로 오이. 아삭아삭 씹는 소리를 내며 강아지 오이 먹방 ASMR을 시전할 정도로 오이 사랑이 남다르다.

두 강아지가 할머니와 함께 만들어내는 케미는 이 채널에서 빠질 수 없는 매력 요소다. 때때로 채소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식탐에 할머니 몰래 무를 훔치려다 야단을 맞기도 하지만, 외출한 할머니가 집에 돌아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반가움을 표현할 정도로 사이가 각별하다. 해피와 퍼니를 생각하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의 마음은 때때로 투박해 보일지 언정 과하지 않고 진득하다. 특히 퍼니는 할머니에게 혼날 때마다 이상한 소리, 이른바 '말대꾸'하는 개인기로 유명한데, 여기에 작위적인 설정이나 킥 샷은 보이지 않는다. 커다란 재미를 주는 건 아니지만, 입가에 미소를 띄게 만드는 잔잔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름 : 해피(Happy) | 생일 : 2018년 3월  
성별 : 암컷 | 종 : 골든 리트리버

이름 : 퍼니(Funny) | 생일 : 2018년 8월  
성별 : 수컷 | 종 : 시베리안 허스키



미국 북서부에 사는 골든 리트리버 단비 이야기



## 골든단비 GoldenDanbi



미국 북서부에 거주 중인 젊은 부부와 골든 리트리버 '단비'의 이야기를 담은 채널. '골든 단비'는 미국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반려 동물과 함께하는 일상을 마치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꾸밈없이 보여준다. 드넓은 자연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단비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영상에 들어가는 단비 아버지의 차분한 나레이션도 비슷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특히 반려동물과 가족 간 관계에 집중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단비' 분양을 시작으로 유기묘 '하나'를 입양하고, 이후 '마루'를 데려오면서 애칭 '단하루네' 가족이 완성되었다. 최근 집사 부부에게 태어난 아기까지, 세 사람 가족과 세 동물 가족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서정적으로 보여준다. 억지스러운 연출 없이도 재미와 감동을 모두 담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반가운 펫튜브다.



이름 : 단비(Danbi) | 생일 : 2018년 10월  
성별 : 암컷 | 종 : 잉글리시 골든 리트리버



이름 : 하나(Hana) | 생일 : 2019년 4월  
성별 : 암컷 | 종 : 아메리칸 숏헤어



이름 : 마루(Maru) | 생일 : 2019년 5월  
성별 : 수컷 | 종 : 아메리칸 미디움헤어



이미지 : ©YouTube 골든단비, 해피퍼니

# 2021

## 실천력 강한 새해 계획 세우기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으로 '흰소의 해'라고 한다. 소는 예로부터 '풍요와 힘'을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왔다. 다가오는 2021년은 우리모두가 소의 기운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밝은 새해를 맞이하길...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거나 신년 계획을 세운다. 특히 지키지 못한 스스로의 '나약한 의지'를 반성하고 새해는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잡고자 책상 앞에 앉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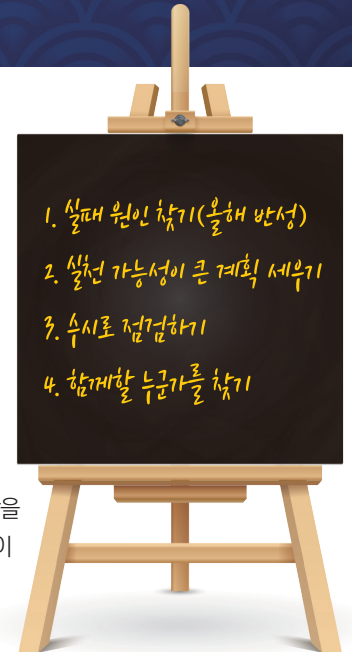
지난 2020년은 모두에게 '예상하지 못한' 또는 '완전히 빗나간' 1년이었다. 2020년은 꼭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사라진 1년 같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했던 일들을 실행할 수 없는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취미활동, 운동, 공부 그 어떤 일도 누군가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즉 코로나19가 불러온 언택트 시대는 많은 사람을 고립시켰다.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반성도, 계획 세우기도 다소 '유쾌'해진다. 이루지 못한 일의 탓을 자기 자신이 아닌 코로나19로 돌릴 수 있고 혼자만의 시간, 혼자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이 주어진 현실을 즐길 수 있다.

생각 뒤집기를 통해 2020년을 돌아보고 '혼자'여서 오히려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2021년 계획을 세워 보자. 또한 한 해가 그냥 지나갔다고 우울해 하는 주변 이들에게 '2021년 새해 계획 세우기' 방법을 소개하자. 가뿐하고도 희망적인 연말연시를 선물하는 일이 될 것이다.

### 혼자라서 더 잘할 수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망했다고? 우리 다 함께 역발상을 해보자! 혼자서도 잘할 수 있고, 혼자라서 '더 잘' 이룰 수 있는 새해 계획 세우기 방법을 찾아보자." 우선 실천력 '짜는' 새해 계획 세우기 방법 네 가지를 소개한다.

이 중 1번은 스킵 해도 될 것이다. 올해 계획의 실패 원인을 찾는 건 내년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도다. 여기서부터 유쾌한 역발상을 해볼까? 올해 실패는 당신 탓이 아니다. 움푹달락 할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스스로를 탓하는 시간낭비를 줄여 보자. 깨끗이 잊고, 빨리 정리해 2021년으로 '어서' 넘어 가보자.



1. 실패 원인 찾기(올해 반성)
2. 실천 가능성이 큰 계획 세우기
3. 습식으로 점검하기
4. 함께할 누군가를 찾기



2021년이 성큼 다가온 만큼 '성취 가능성이 높은 계획'으로 먼저 세워보자. 목표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로 좁혀지면 예년보다 목표 설정이 훨씬 쉽다고 느껴질 것이다.

일례로 수영장 개근이나 매주 독서토론 동호회에 나가는 일은 위시리스트에서 과감히 삭제해도 좋다. 의외로 힘든 목표다. 이때도 언짢아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코로나19가 혼자서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른 리스트를 살펴보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의 많은 분야에서 랜선을 의지하게 만든 '언택트' 라는 제약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계획을 찾아보면 된다.

'소모적인 인간관계 정리를 통한 충분히 쉬기'는 어떨까? 피곤한 회식이나 약속에 소모되는 정신적 물질적 체력적 비용을 1도 탕진하는 일이 없어 진다. 오롯이 나 혼자 편히 누워서 또는 명상을 하면서 쉬는 것이다. '재택근무에 따라온 자투리 시간, 곧 출퇴근 시간을 이용한 홈트'는 어떨까? 길 위에서 보내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된 건 괜찮은 이득이다. 이 시간을 출퇴근이라는 시간낭비 대신 운동으로 채운다면 다이어트나 몸짱이 현실로 다가 올 수 있을 것이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 가사가 늘었다면 역발상으로 '나만의 집밥 레시피 50선 만들기' 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꼭 해야만 한다면 말이다. SNS에 공유하며 1인 미디어를 키워나가는 것도 의미 있는 취미가 될 것이다.

## 틈틈이 확인하고 함께할 이를 찾기

다음으로 소개할 항목은 '수시로 점검하기'다. 이걸 약간의 자기 암시를 걸어 두길 권한다. "코로나19 때문에 불편해!" 더 나아가 "코로나19 때문에 못 살겠네!"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마다 "아침 내가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면서 새해 목표를 얼마나 이뤘는지 점검하면 어떨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시로 체크하는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새해 계획 세우는 방법은 '함께 할 동반자를 찾기'다. 코로나는 우리가 혼자 할 기회와 시간, 달리 말하면 혼자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감정은 반대로 함께하는 이를 더욱 간절히 원하게 만들 때도 있다. 이런 분들은 새해에 하고 싶은 일을 누군가와 함께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된다. 대면 접촉의 제약은 있지만 제법 만족스러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음악, 미술과 같은 예술·문화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랜선 음악회나 창고형 전시회를 열어 방식은 언택트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연결되는 활동을 추구한다. 물리적인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함께할 수는 없지만,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카페 운영자들은 야외석을 늘려서 더 운치 있는 카페, 창문이 열린 멋진 카페로 만들기도 한다. 우리도 각자의 영역에서 함께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면 반드시 새롭고 더 멋진 길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 SBI가 SBI를 찾습니다



## 기업PR 캠페인

SBI저축은행 기업PR 광고 '참여형'으로 진화하다. SBI저축은행은 보편적인 기업 PR CF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대신 고객이 직접 사연을 보내 CF 소재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참여형'으로 진행한다. 특히 지난 중금리 광고 때도 기업명을 이용하여 'S(선택), B(받고), I(있다)' 메시지를 전달했던 SBI저축은행은 이번 기업PR CF에도 회사명 이니셜을 강조해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SBI. 보다 친근하게 대중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 누군가에게 1등인 우리 이웃의 이야기

<SBI가 SBI를 찾습니다>는 SBI저축은행의 이니셜인 S·B·I를 활용한 캠페인으로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마주치는 가족·친구, 가게, 반려동물 등 S·B·I 이니셜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 주변의 이야기, 마치 옆집에 살고 있을 것만 같은 사람들 이야기로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서 SBI는 옥외광고, 티저용 TV-CF 마련했다. 서울 시내 빌딩 전광판, 육교, 버스정류장 등 <SBI가 SBI를 찾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사이트 '아이엠에스비아이'(www.iamSBI.com)를 개설해 SBI 이름 이니셜(SBI)이 동일한 이들의 재치 있는 사연을 모집 중이다. 이번 참여형 캠페인의 백미는 접수된 사연 중

최우수작을 선정해 500만 원의 상품과 'SBI가 찾은 SBI' CF 모델로 직접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최우수작 외에도 매월 100명을 추첨해 다양한 선물까지 증정한다.

현재 '아이엠에스비아이' 사이트에는 인물, 애완동물, 기업 그리고 영화까지, 우리 주변의 숨겨진 S.B.I.들의 사연들이 접수되고 있다. 광고 캠페인 본편은 접수된 사연으로 스토리로 구성하여 '우리 이웃의 진짜 이야기'를 담아낸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새로운 S.B.I를 찾아 '누군가에게 1등인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이다.

## SBI가 찾은 SBI

<SBI가 SBI를 찾습니다> TVCF 본편을 론칭했다.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사연 중 독특하고 재미있는 3편을 선정했다. 선정된 주인공들은 광고 영상 제작에 직접 출연하여 본인의 이야기를 전달했다. 아래의 주인공들을 만나보자.



### 달달한 상범이네 Sang Bum Ine

도봉구에서 30년째 도넛 가게를 열고 있는 상범이네. 상범이네 도넛초는 달달해 단골 손님이 1등도넛 가게라고 부릅니다. 우선 좋은 기름을 씁니다. 아침 8시 일어나 하루도 빠짐없이 도넛초를 만듭니다. “누군가의 1등인 당신처럼, 힘이 되는 1등 저축은행 SBI저축은행”



### 도전하는 신별이 Shin Byeol-I

피아노를 전공한 신별이(26세 대학생)는 배우가 꿈이라 연기과에 다시 진학했습니다. 당구장 아르바이트 중에도 ‘연기 연습’에 여념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신별이 도전정신을 1등이라고 칭찬합니다. “신별이 씨처럼 도전하는 SBI가 될 게요. 누군가의 1등인 당신처럼 SBI저축은행”



### 웃음주는 식빵이 Sik Bbang-I

우리집 고양이 식빵이는 가끔 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멀리서 어슬렁거리며 오는 모습은 천상 사자인데, 배고플 땐 완전 판판의 귀염둥이로 변합니다. 식방이 때문에 웃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식방이 보다 웃음주는 SBI가 될 게요. 누군가의 1등인 당신처럼 SBI저축은행”

## S·B·I 이니셜을 가진 모든 SBI를 찾습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가족, 친구, 가게, 반려동물 등 S·B·I 이니셜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SBI가 찾은 SBI 기업PR 광고는 “누구의 사연일까?”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갖가지 SBI들을 찾고, 기억하자는 캠페인이다. SBI저축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많은 부분을 제약 받고 있는 대중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선물하고, 우리 이웃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기업PR 캠페인을 기획했다. 기업이 중심이 아닌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만들어 나가는 캠페인으로 ‘광고 완결편’은 바로 ‘우리 주변의 S·B·I’로 완성될 예정이다.

# SBI가 SBI를 찾습니다

누군가의 1등인 당신처럼, 힘이 되는 1등 저축은행  
SBI저축은행이 세상 모든 SBI를 광고모델로 초대합니다.  
SBI저축은행이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로 TV광고를 제작해 응원합니다.  
어떤 사연의 주인공이 탄생할지 SBI가 S·B·I를 기다립니다.

[www.iamSBI.co.kr](http://www.iamSBI.co.kr)

# 은행이 은행을 구하다

## 은행저축 프로젝트 Season 3

SBI저축은행이 올해도 <은행저축프로젝트> 아래 베어질 위기에 처한 은행나무 살리기에 나섰다. 2018년에 시작한 사업은 벌써 3주년을 맞았다. 이번에는 시민들의 응원메시지를 받아 이름표까지 달아주어 호응이 더욱 크다. “고객님의 이름으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저축되었습니다. 맑은 공기가 매일 이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은행저축프로젝트>는 ‘은행(銀行)이 은행(銀杏)을 살린다’는 독특한 발상에서 시작된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이는 생명존중,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SBI저축은행의 기업정신이 담긴 사업이기도 하다. 주요 사업은 가을이면 열매가 풍기는 악취 때문에 베어질 암은행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이식사업이다. 올해의 작업 지역은 서울에서 은행나무 가로수를 최다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일대이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 취지를 널리 알리고, 대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민참여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참여단은 SBI저축은행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은행저축프로젝트>

응원 메시지를 응모한 시민 중에서 500명을 선발해 구성했다. 시민참여단에게는 캠페인을 상징하는 배지를 증정하고 참여단 개인의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겨진 암은행나무에 걸어줄 예정이다.

은행나무는 그동안 도심 곳곳에 가로수로 자리해왔다. 생명력이 강하고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등 장점이 많아서다. 반면에 가을만 되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해 열매를 맺는 암은행나무는 해마다 벌목돼 왔다고 그 자리를 수은행나무가 대신하고 있다. 흔하디흔한 나무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은행나무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될 만큼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3년 동안 SBI저축은행은 도심 지역 암은행나무를 안전하게 캐내 인적이 드물고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변이나 한강공원 인근으로 옮겨 심어왔다. 기존 암은행나무의 자리에는 열매를 맺지 않는 수

은행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옮겨 심어진 암은행나무들은 도로의 매연을 정확하고 한강공원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맑은 공기와 수목이 풍성한 자연경관을 제공한다.

3년째인 <은행저축프로젝트>는 특별하다. 많은 시민이 ‘생명존중, 사람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캠페인의 취지를 공감하고 더 나아가 은행나무 살리기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이번 캠페인에 함께한 시민은 본인의 이름표가 걸린 은행나무 앞에서 소감을 전했다. “요즘 솔직히 생명이나 환경보다 돈이 먼저잖아요? 이런 시대에 나 자신과 우리 모두, 더 나아가 자연을 위해 나무를 저축하는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SBI저축은행은 시민참여단의 이 같은 큰 호응을 힘입어 앞으로도 대중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은행저축프로젝트>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 SBI의 새얼굴을 소개합니다

채널2부, 3부에 힘을 보태고자 SBI인이 된 경력사원을 소개합니다.  
직장경험이 다르지만, 금융을 이해하고,  
신축년(辛丑年)을 더욱 힘차게 열 포부로 가득 찬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 1 'SBI저축은행'과 2021년 어떻게 보낼 것인지?
- 2 올해 아쉬웠던 점과 하려다 못해 아쉬운 점?
- 3 내년에 이루었으면 하는 소망은?
- 4 내 이력서 중에 가장 뽐낼 수 있는 한 가지?
- 5 직장생활하면서 가장 속으로 흐뭇했던 칭찬이 있다면?

유영근 대리 | 채널2부

- 1 더욱 더 멀리 같이 발전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동반 성장하는 2021년을 보내겠습니다.
- 2 올해가 가기 전까지 내부 업무를 모두 숙지하여 체계화하려 했는데 아직 완료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2021년 새 기운으로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 3 '무엇이든 잘 하는 사람'으로 사내 평판을 갖고 싶습니다.
- 4 '경력'입니다. 사회에서는 33세면 아직 어린 축에 분류되지만, 지난 8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배운 경험은 저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 5 "역시 년 월해도 잘할거야" 직장동료들이 저와 상담하고 나서 하던 말입니다. 제가 아는 경험 및 지식 내에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지만, 칭찬을 해주는 동료들의 말에서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 1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조직에 잘 적응 및 융화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맡은 바 직무나 업무를 잘 해내는 그런 2021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 2 이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직장의 직원들과의 헤어짐이 제일 아쉽습니다.
- 3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이 정리되길 바랍니다.
- 4 SBI저축은행에 입사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자랑이죠^^
- 5 대주단 대출이나 컨소시엄을 진행하면서, "너 없었으면 대리은행 담당하지 않았겠다." 라는 말씀을 들곤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가 가장 흐뭇하고 뿌듯했었던거 같습니다.

윤배영 대리 | 채널3부







## 김아림, 희망을 들어올린다

# SBI골프단 소속 김아림 프로 2020 U.S.여자오픈 우승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로 암울했던 시기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US여자오픈에서 박세리가 ‘맨발 샷’ 투혼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린 광경은 전 국민에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었다. 그런 박세리를 보면서 꿈을 키워 온 여자골프 선수들을 ‘박세리 키즈’라고 부른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박인비의 등장처럼 2020년 금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울할 때 또 한 명의 박세리 키즈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 세계 랭킹 94위. US여자오픈 첫 출전

휴스턴 챔피언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 US여자오픈. LPGA대회에 생애 첫 출전한 김아림 프로는 최종일 4라운드 단독 선두 시부노 하나코(일본)에게 5타 뒤진 공동 9위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마지막 16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3연속

### 김아림(Kim A-Lim)

- 생년월일 : 1995년 10월 4일 생 (만25세)
- 175 cm, 비거리 260 yard
- 2020 시즌
  - LPGA <2020 U.S.여자오픈> 우승
  - KLPGA 시즌 상금 21위 (187,576,207원)

- 2019 시즌
  - KLPGA 시즌 1승 달성 (통산 2승), 상금 11위 (528,685,936원)
  - 4월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3위)
  - 6월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컵 (3위)
  - 7월 MY모영 퀸즈파크 챔피언십 (우승)
  - 9월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2위)

- 2018 시즌
  - KLPGA 시즌 1승 달성 (통산 1승), 상금 6위 (586,399,334원)
  - 5월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3위)
  - 5월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2위)
  - 5월 E1 채리티 오픈 (2위)
  - 9월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우승)



버디’를 포함해 합계 3언더파 281타를 기록했고 공동 2위 고진영과 에이미 올슨(미국)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 제 플레이가 누군가에게 희망과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아림은 이번 대회 내내 마스크를 쓴 채 경기를 해 화제가 되었다. 그는 “꾸준히 (마스크 쓴 채) 연습을 했다. 내가 걸리는 건 무섭지 않은데 내가 또 다른 누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였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1998년 박세리 선수의 우승이 IMF조기 졸업에 일조했듯이 나의 이번 우승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과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라는 우승 소감을 밝혔다.

SBI골프단과 손을 잡고 SBI저축은행 로고를 달고 댄 첫해부터 각종 경기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김아림은 이번 US여자오픈 우승을 통해 미국 LPGA투어 진출할 자격을 갖게 되었으며, 여자골프 세계랭킹 30위를 차지했다. 마치 동화와 같은 메이저 우승을 차지한 김아림 프로. 그의 2021년이 더욱 빛나길...



## SBI저축은행 올해의 SBI인상 시상식

SBI저축은행이 지난 10월 30일 을지로 본사에서 창립기념일을 맞아 올해의 SBI인상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올해의 SBI인상 시상에서 선도적 해외 인프라, 부동산 딜 발굴한 IB1부 이우창 과장과 CSS 모형 재개발을 통한 CSS 전략 극대화를 이룬 CSS부 이민형 과장이 SBI인상을 수상하였다. 수원지점 문효경 사원은 햇살론 실적 및 대출자산 증대에 우수한 역량을 발휘해 SBI인 고객감동대상을 수상하였고, 그 외 2020년의 탁월한 업무능력을 보인 12명의 직원이 SBI인 Credo상을 수상하였다. 이날 2020 금융의날 금융발전유공자로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한 이광호 과장의 시상식도 거행되었다.

## 소외결식아동 지원 위한 행복얼라이언스 참여



SBI저축은행의 사회공헌 캠페인 '우리는 특별한 사이이다' 프로그램에 이어 세 번째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 주변 소외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SBI저축은행은 국내 소외 결식아동이 33만 명에 달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얼라이언스' 참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아동 지원에 나선다. 행복얼라이언스는 SK그룹의 사회공헌 단체로 현재 약 65개 기업이 참여해 소외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SBI저축은행 정진문 대표이사는 "최근 경기불황의 장기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복도시락과 행복상자꾸러미를 전달해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과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 SBI저축은행, 서울 노원구청에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SBI저축은행은 노원구청, 사랑의 열매와의 연계를 통해 노원구 관내 소외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식을 가졌다.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식은 지난 2017년 시작되어 올해 4년째 이어져오는 SBI저축은행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각 가정으로 전달되고 있다.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SBI저축은행 본사와 노원구청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 2020년 대졸신입 수시채용 및 온라인 채용설명회 진행



SBI저축은행이 코로나19 환경에 맞춰 온라인 채용설명회, 빅데이터 기반의 AI역량검사도입 등 '2020년 대졸신입 수시채용' 전형을 진행했다. 그간 SBI저축은행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우수인재가 많을 경우 선발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 등 금융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파격적인 채용을 진행해왔다. 2020년 대졸신입 수시채용은 저축은행 업권에서 최초로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인사담당자와 비대면, 실시간 채팅을 통해 기업정보, 채용정보, 취업 준비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팁을 제공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과거 오프라인 인적성검사를 폐지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AI역량검사를 도입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 대졸신입 합격자는 전형 절차를 거쳐 채용이 확정되며, 2021년 1월 4일 입사할 예정이다.

## 금융권 최초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도입



SBI저축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심이체서비스'를 도입했다. SBI저축은행 모바일뱅킹 <사이다뱅크>를 통해 제공되는 '안심이체서비스'는 송금 받는 계좌의 명의자와 휴대전화번호 명의자가 동일인인지 검증하고, 문자인증코드를 이용해 수취인의 거래의사를 확인하는 '2way 양방향 거래인증'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고 및 착오송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금융사기 예방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이번에 혁신금융 '안심이체서비스' 도입 외에도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SBI저축은행, 송년회 대신 전국 소외아동 지원 위한 사회공헌 활동 나서



SBI저축은행이 연말을 맞아 송년회 대신 소외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다. SBI저축은행은 연말에 사용되던 송년회 예산을 국내 대표 사회공헌 단체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금으로 전달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소외아동 지원에 나선다. SBI저축은행 기부금은 빈곤가정지원, 아동보호, 보육, 문화예술, 교육, 연구조사사업 등 다양한 소외아동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SBI저축은행 정진문 대표이사는 "연말을 맞아 송년회 보다는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앱 탐지 솔루션 도입



SBI저축은행이 인공지능 기반의 보이스피싱앱 탐지 솔루션을 도입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SBI저축은행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발생하는 금융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가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차단 솔루션인 페이크 파인더 서비스를 도입했다. 페이크 파인더는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인 에버스핀이 개발한 보이스피싱 탐지 솔루션으로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고객 기기에 설치된 앱과 해당 정보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솔루션이다. SBI저축은행은 페이크 파인더 도입을 통해 별도 앱을 사용하지 않고도 모바일 금융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사내 게시판에서 다음 호 <SBI 체험현장> 참가 신청과 <SBI pick's>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SBI 체험현장> 참가 신청

가족, 동료, 연인, 친구 등과 함께 참여하는 액티비티에 도전해 보세요. 멋진 사진으로 추억을 남겨드리고 참여하신 분께 백화점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 <SBI pick's> 설문 참여

임직원 여러분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콘텐츠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SBI저축은행 매거진 <희망저축>은 임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두 귀를 쫓고 세웁니다.

홍보부 유형근 주임(koomtle@sbisb.co.kr)에게 의견을 보내주세요.

## 편집후기

### 고집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소(牛)'의 해입니다. '소'하면 떠오르는 건 근면, 성실, 끈기, 투지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많이 떠올리는 건 '고집이 세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황소고집'이라는 단어도 있을까요.

고집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림'입니다. 단어만 봐도 이기적인 느낌이 가득하죠. 특히 요즘 트렌드와 고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무엇이든 생산과 소비의 속도가 빠른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유행에 짧게 몰두하고, 쉽게 새로운 것으로 갈아타며, 취향을 빨리 바꾸는 세상이죠.

하지만 고집이 없는 세상이라면 재미없지 않을까요. 저는 한편으론 한 우물만 파고 본인의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 세상이 더 다채로워 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색이나 입힐 수 있는 하얀 도화지보다 본인 고유의 색깔을 가진 사람이 때론 더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집 부리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집 센 사람들은 본인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트러블도 피하지 않습니다. 타협하면 편할 텐데 불편함도 감수하죠.

누구에게나 고집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루틴'을 고집하고, 음식점에서는 '맛'에 대한 고집을 홍보하고, 우리가 쉽게 바꾸지 않는 '가치관'도 고집의 일종입니다. 저도 한 고집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보면 "저 놈은 누굴 닮아서 고집이 저렇게 세지"라며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저는 유전자의 힘을 믿거든요. 오늘도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세상의 모든 고집 센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홍보부 유형근 주임

## 다른 그림 찾기

두 사진에서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1. 서로 다른 곳을 찾아 사진에 표시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세요.
2. 3월 22일(월)까지 홍보부 유형근 주임(koomtle@sbisb.co.kr)에게 답을 보내 주세요.
3. 정답을 보내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다섯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지난 호 다른 그림찾기 정답

